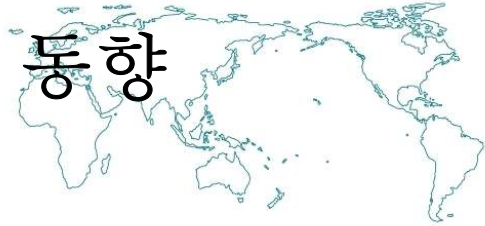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3. 12



목차

1. 개방형 표준을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방식
2. ETSI 미래 모바일 정상회의에서 5G 모바일 시스템 요건 논의
3. ITU, TV 및 라디오의 '실감적'이고 '개인화된' 차세대 오디오 시스템 권고 초안 발표
4. ANSI, 텔레콤 및 ICT 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5. TTA, 스펙트럼 공유에 대한 백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구체적 권고 발표
6. 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 표준 기반 통신 및 상호운용성 원한다
7. ITU, 광대역 속도 1Gbit/s까지 향상시킨 G.fast 표준 승인
8. IMI, EU 행정 간 유연한 정보 시스템
9. ETSI,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에 관한 보고서 공개
10. IEC, e-폐기물 줄일 노트북 충전기 기술표준 발표
11. ANSI, RAND 분쟁에 대한 토론 계속할 것

▷ 토막 뉴스 13

▷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14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12월 1일~31일) 15

1

개방형 표준을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방식

- 보도날짜 : 2013. 11. 25
- 출처 : EU/ISA
- 사이트 : <http://ec.europa.eu/isa/news/2013/recognition-for-dutch-approach>

- 전자정부 솔루션에 적합한 기술표준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임. 공공 행정에 있어 선택한 표준이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는지, 개발 과정이 열려 있으며 합의에 기반하는지, 지적재산권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장벽을 만들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짐
- 네덜란드 정부는 열린 전자정부 표준인 Bomos2i의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ISA는 이에 이들의 협력 공동 플랫폼에 Bomos2i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음
 - 네덜란드의 열린 전자정부 표준 선택 및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난 몇 년간 Logius에 의해 개발되었음
 - Logius는 네덜란드 내무부의 한 부문인 ICT 거버넌스 기관임
- Logius는 표준 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기관과 그 활동 측면에서 기본 요구 사항을 설명함. 지침서는 표준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트리(decision tree) 템플릿과 다양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함
 - 이들은 저작권 및 참여자들의 기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에 관한 모든 문서를 공개함
- Logius가 지적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은, 개방형 표준이 꾸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임.
 - “관리되지 않은 표준은 표준이 아니다.”
 - 공공행정은 표준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 펀딩 및 비영리 조직 생성을 피해야 함

2

**ETSI, 미래 모바일 정상회의에서
5G 모바일 시스템 요건 논의**

- 보도날짜 : 2013. 11. 27
 - 출처 : ETSI
 - 사이트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724-2013-11-5g-mobile-system-requirements-discussed-at-etsi-future-mobile-summit>
-
- 현재 배포된 4G 시스템의 뒤를 이어 개발될 모바일 기술의 다음 세대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와 연구 및 학계, 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ETSI 미래 모바일 정상회의가 2013년 11월 21일 프랑스 명들리유에서 열림
 - 5G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5G 시스템 개발 윤곽을 그럴 몇몇 요소는 이미 알려져 있음
 - 5세대 모바일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높은 속도의 유비쿼터스 연결을 달성할 것임
 - 시장에서는 2020년 전까지 진정한 5세대 시스템을 볼 가능성이 희박함
 - 데이터 트래픽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해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임
 - 5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2014년부터 2020년 간 R&D에 업계의 투자를 활용하여 7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상호운용가능한 5G 네트워크 연구 및 혁신을 가속화, 구조화하기 위한 5G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함
 - ETSI 미래 모바일 정상회의는 3GPP™의 작업을 기리며 프로젝트의 15주년을 축하함.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는 ETSI, GSM™에서 현재의 LTE™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시스템 표준 활동에 힘을 모으기 위한 여섯 개의 통신표준 개발기구의 공동 이니셔티브임

3

ITU, TV 및 라디오의 '실감적'이고 '개인화된' 차세대 오디오 시스템 권고 초안 발표

- 보도날짜 : 2013. 12. 02
- 출처 : ITU
- 사이트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3/69.aspx#.Up6YnDCwflV

- 20년 전 ITU 전파통신 부문 연구그룹 6은 권고 ITU-R BS.775 방송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인 5.1 채널을 승인했음
 - 이는 저주파 서브우퍼에 더해 일반청각 수준(ear level)에서 다섯 개의 라우드 스피커의 최적화된 사용을 포함한 것임
 - 현재 연구그룹 6은 차세대 '실감적'이고 '개인화된'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중임. 스크린을 가로질러 수평/수직 양측에서 오디오 트랙 소스를 추적함에 따라 TV 시청자가 소리에 '포위'될 수 있게 함
-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뷰어를 둘러싼 청각 조경은 존재할 수 있는 추가 라우드 스피커가 '렌더링'할 수 있는 더 많은 오디오 채널을 제공하거나 기존 스피커에 '드라마틱하게 렌더링'하는 오디오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전달됨
- 새로운 시스템은 라디오 및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 및 패키지 미디어에서와 같이 이미지 없는 실감 오디오 뿐 아니라 향후의 초고해상도 또는 UHD TV 시스템, 기존의 HDTV 혹은 더 오래된 SDTV와도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청각 조경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함
- 이 새로운 권고 초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고급 사운드 시스템'은 조합 채택 및 승인 절차를 위해 ITU-R 회원국과 부문 회원들에게 제출됨
 - ITU-R 연구그룹 6은 범용 라벨('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추가 작업에 착수중임

4

ANSI, 텔레콤 및 ICT 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 보도날짜 : 2013. 12. 09
- 출처 : ANSI
- 사이트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



- ANSI는 지난 12월 5일, ITU 전기통신표준화국(TSB) 말콤 존슨 국장을 사회로 통신, ICT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 3시간의 회의에서 해결된 주요 문제는 다음을 포함함:
 - 통신, ICT 및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ITU-T 표준 프로그램의 진화
 - ITU-T 및 기타 표준개발기구(SDOs) 간 관계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원칙
 - 통신, ICT 및 관련 표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관심
 - ITU-T의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의 현 상태 및 향후 계획
- ITU-TSB는 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IEC 표준화관리위원회 와 함께 일반주제, 협력, 작업 중복에 대한 대화에 집중함
- 말콤 국장은 SDO가 공통 및 보완 국제 표준을 지향하여 작업할 것을 제안함
 - 그는 성공적인 모델로 ITU와 ISO/IEC JTC 1이 공동 개발한 비디오 코딩에 대한 최신 표준(ITU-T H.265 또는 ISO/IEC 23008-2)을 꼽음

5

TIA, 스펙트럼 공유에 대한 백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구체적 권고 발표

- 보도날짜 : 2013. 12. 10
- 출처 : TIA
- 사이트 : <http://www.tiaonline.org/news-media/press-releases/tia-announces-white-paper-spectrum-sharing-offers-specific-recommendations>

- TIA는 가능한 스펙트럼에 대한 국가의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킬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서 “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 발표
 - 백서는 스펙트럼 연구를 위한 R&D 편당의 현재 및 제안된 소스를 검토하고, 빠르게 발전한 스펙트럼 공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R&D 영역을 식별함
- “무선 광대역 성장은 국가 최대 규모의 경제 원동력 중 하나이며, 스펙트럼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 따라서 혁신적인 스펙트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스펙트럼 공유 기술은 전망이 밝으나 이러한 기술의 상당수를 주류에 편입시키는 데 막대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함. 연구 생태계 기반을 현대화하고 우선순위인 분야에 R&D를 집중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산업계와 공동으로 작업해야함”
- 백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업무를 가이드하기 위한 열한개의 권고를 포함하며 학계, 산업계 등의 스펙트럼 공유 R&D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함
- 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은 12월 10-11일, 텍사스의 TIA의 CTO 위원회 라운드테이블과 함께 시작됨

▷ 참조 - 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 백서 전문 :

<https://www.tiaonline.org/sites/default/files/pages/SpectrumSharingR%26D%26aper%3D10-20-13.pdf>.

6

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 표준 기반 통신 및 상호운용성 원한다

- 보도날짜 : 2013. 12. 10
- 출처 : IEEE-SA
- 사이트 : http://standards.ieee.org/news/2013/ieeesa_mhealth-summit.html

■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 해, 수십억 달러가 의료 기기 간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의 간극으로 사라짐.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웹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됨

■ 의료 기기와 기업의 의료 시스템 간에 건강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환자의 안전, 개인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절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실제로 “치료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 상호운용성 추진”이 워싱턴에서 열린 mHealth 정상회담(12월 8-11일)의 아젠다였음

■ 올해 초 미 식품의약국(FDA)은 의료산업계를 위한 지침으로서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을 공인함. FDA가 받아들인 12개의 표준은 IEEE 11073™ 표준군에 속하며 의료제품 공급 업체와 벤더가 질병관리, 건강과 피트니스, 독립적 삶을 위한 상호운용가능한 장비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

FDA의 IEEE 11073 표준 승인에 대한 2013년 11월 12일자 보도 자료

■ IEEE-SA는 획기적인 분야인 “신체 영역 네트워킹” 뿐 아니라 의료기기 통신이 점점 더 의존하는 인터넷 미디어 액세스 장비 표준에서 국제 선두주자임
- 신체 영역 네트워킹 : IEEE 802.15.6™ “지역 및 도심지역 네트워크 표준 - 파트 15.6: 무선 신체 영역 네트워크”
- 인터넷 미디어 액세스 장비 표준 : IEEE 802.3™ “이더넷 표준”, IEEE 802.112; 시장에서 Wi-Fi®로 브랜드화되는 제품을 가능하게 함

7

ITU, 광대역 속도 1Gbit/s까지 향상시킨 G.fast 표준 승인

- 보도날짜 : 2013. 12. 11
 - 출처 : ITU
 - 사이트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3/74.aspx#.Urdt4jCwflU
- 기존 전화선을 통해 최대 1 Gbit/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ITU 광대역 표준인 G.fast가 승인의 첫 단계에 도달함
 - 권고 ITU-T G.9701 “수신단자에 대한 빠른 액세스 - 물리 계층 규격”이 정의하는 G.fast의 물리층 프로토콜 양상이 표준의 승인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안정점에 도달함
 - ITU-T G.9701은 G.fast 장비가 FM 라디오와 같은 방송 서비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정하는 ITU-T G.9700과 결합하여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트랙에 올라있음
 - G.fast는 FTTdp 아키텍처 내에서 광섬유와 ADSL2의 가장 장점들을 결합했음
 - G.fast의 광섬유급 속도로써 배포 지점의 250미터 범위 내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ADSL2 셀프 설치로 가정 내 광케이블(FTTH) 전략을 보완할 수 있어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장외 솔루션, 기술자의 도움 없는 셀프 설치, 울트라 HD '4K' 또는 '8K' 스트리밍, IPTV 및 고급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HD 비디오를 통한 통신과 같은 대역폭 집약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비를 갖추 수 있음
 - 칩 제조업체는 이제 G.fast 칩 설계와 테스트 작업의 스케일을 키울 것임
 - 이미 2014년 4월로 G.fast를 마무리짓는데 합의하고 ITU-T 스터디그룹 15에 작업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G.fast는 VDSL2와 공존하도록 설계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 표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G.fast와 VDSL2 간 고객을 전환함
 - G.fast 표준 개발은 광대역 포럼의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젝트인 FTTdp와 통합되었음
 - 브로드밴드 포럼은 프레임워크 백서 및 인증 프로그램과 더불어 상호운용성, 시스템 성능, 기능 등을 위한 테스트플랜을 포함할 G.fast 테스트 세트를 개발 중임
 - ITU-T와 광대역 포럼은 G.fast 솔루션이 신속하게 FTTdp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8

IMI, EU 행정 간 유연한 정보 시스템

- 보도날짜 : 2013. 12. 16
- 출처 : EU/ISA
- 사이트 : <http://ec.europa.eu/isa/news/2013/imi-flexible-information-system-support>

- 내부시장정보시스템인 IMI 사용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 IMI를 통한 공공행정 간 정보 요청의 수가 올해에만 38% 증가함
 - 요청의 25% 이상이 하루 만에 답변이 됨
 - 현재 7,300개의 당국과 14,000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음
- IMI는 국가, 지역 및 지방 당국이 해외 대응국과 정보를 전달 및 공유하게 하는 온라인 보안 애플리케이션임. 유럽 공공행정 간 상호운용성, 공유 및 재사용을 장려하는 ISA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유럽위원회가 개발함
- IMI가 커버하는 정책 분야는 전문 자격, 서비스, 근로자 게시, 미달 현금, 전자 상거래 및 환자의 권리를 포함함. 유연한 설계와 IMI 규정에서 제공하는 법률 프레임워크 덕분에 IMI는 쉽게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
- IMI의 장점
 - IMI는 모든 EU 언어로 사용가능함. 해당국이 자유롭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기계 번역을 통해 번역됨
 - IMI는 어떠한 국가행정구조든 수용가능함
 - 회원국에는 IMI 사용에 있어 IT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IMI를 통한 정보 교환은 완전히 안전하며 데이터 보호에 우호적임

▷ 참조 - IMI 정책 전문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

9

ETSI,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에 관한 보고서 공개

- 보도날짜 : 2013. 12. 16
- 출처 : ETSI
- 사이트 : http://standards.ieee.org/news/2013/ieeesa_mhealth-summit.html

- ETSI 클라우드 표준 조정 이니셔티브의 최종 보고서가 12월 11일 브뤼셀에서 ETSI와 유럽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클라우드 커뮤니티 행사에서 공개됨



- ETSI가 주도한 클라우드 표준 조정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위원회가 정의한 정책 목표 시리즈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표준의 상세한 맵을 확인하는 것이었음

- 이니셔티브는 이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할 클라우드 산업자, 공공 기관, 사용자 협회 및 20개 이상의 표준 설정 기구들을 불러모음

- 보고서는 다음 등을 제공함:

- 클라우드 컴퓨팅 역할 정의
- 100개 이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사례 수집 및 분류
-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와 관련한 20여개의 관련 기관 목록 및 선정된 150여개의 관련 문서, 표준 및 규격, 보고서 및 백서
- 클라우드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또는 제공업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활동 분류
-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선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문서(특히 표준 및 규격)의 매핑

- 보고서는 결론으로 미래의 권고 묶음을 제공함. 보고서는 클라우드 표준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으며 표준이 일부 영역에서 성숙해간다고 분석함

10

IEC, e-폐기물 줄일 노트북 충전기 기술표준 발표

- 보도날짜 : 2013. 12. 18
 - 출처 : IEC
 - 사이트 : <http://www.iec.ch/newslog/2013/nr2713.htm>
- IEC는 첫 최근 넓은 범위의 노트북 및 랩톱 컴퓨터의 단일 외부 충전기 관련 세계 기술표준인 IEC 기술표준 62700: 노트북 컴퓨터 DC 전원공급 장치를 발표함
- 새로운 IEC 기술표준은 안전, 상호운용성, 성능 및 환경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 및 그 커넥터와 플러그까지 다룸
 - IEC의 작업은 충전기 사용에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며, 요구되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함
- 매년 50만 톤을 초과하는 e-폐기물(전기·전자 폐기물)의 반 이상이 모든 종류의 ICT 기기 충전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50만 대의 자동차와 맞먹는 수치임
- 새로운 IEC 기술 표준은 중대하고도 매우 현실적인 전원공급 장치와 관련된 e-폐기물의 감소로의 길을 열어, 소비자가 다양한 노트북 컴퓨터에 단일 외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또한 필요할 때 훨씬 더 쉽게 외부 충전기를 재활용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함
- IEC는 2011년, 휴대 전화 범용 충전기에 대한 첫 세계표준을 발표했음. 이 작업은 CENELEC과 ITU-T의 지원과 IEC가 오랜기간 지속해온 (EU)협정으로 성취되었음
- 오늘날 유럽 전자기술표준의 82%가 IEC 국제표준과 동일하거나 이에 기반함
 - 이번 작업으로 IEC는 e- 폐기물 감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함

11

ANSI, RAND 분쟁에 대한 토론 계속할 것

- 보도날짜 : 2013. 12. 18
- 출처 : ANSI
- 사이트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3820&source=whatsnew122313

■ 표준개발기구들은 일반적으로 특허 보유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AND) 조건으로 표준필수특허(SEP)를 라이선싱할 것을 요구함. 최근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증가하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SEP 분쟁들은 RAND 협약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의견 차이를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쟁 해결에 가능한 수단으로 중재를 꼽았음

■ ANSI는 2014년 1월 21일 워싱턴 DC에서 RAND 분쟁 중재에 초점을 맞춘 무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은 RAND 분쟁에 대한 잠재적 해결 매커니즘으로 중재에 초점을 맞췄던 2013년 10월 1일 ANSI 법적문제 포럼 위에 구축된 것임

- 1월 21일 반나절 간 진행되는 행사는 대화형 원탁토론으로 구성되며, American University 법학 부교수인 호르헤 콘트레라스에 의해 검토될 것임

- 다양한 의제의 패널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음:

WilmerHale 수석 고문 제임스 카터, 디지털비디오방송프로젝트(DVB) 법무이사 카터 엘츠로스, 미 법무부 검찰총장차장 레나타 헤세, ETSI 법무이사 크리스찬 로요, 구글 정책자문 로버트 마히니, Criterion Economics 회장 그레고리 시닥, 미 연방거래위원회 반경쟁부문 부회장 니콜라스 위드넬

- 워크숍은 WilmerHale과 더불어, American University와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가 후원함

토막 뉴스

- **세르비아, ITU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2014 지역준비회의 개최 (2013.11.26.)**
 - 11월 26-28일 간의 세션에서 2010년 마지막 컨퍼런스에서 합의되었던 하이데라바드 액션 플랜의 이행을 점검했으며 유럽 ICT 개발 전략의 우선 분야를 파악함

- **UN ICT 통계 심포지엄 개최-지속가능한 전세계적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 (2013.11.27)**
 - 제목: ITU 세계전기통신/정보통신기술지표 심포지엄
 - 기간: 2013년 12월 4-6일
 - 장소: 멕시코시티 외무성
 - 목적: 멕시코 정부 및 민간 부문, 글로벌 ICT 커뮤니티의 최고 권위 발언자 경청

- **ISA, ICT 솔루션 공유 위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검토 (2013.12.16.)**
 - 10월 21-22일 브뤼셀에서, 대표단들은 각각의 ICT 보고를 연합하기 위해 ISA와 실질적인 첫 단계를 논의함
 - 또한 대표단들은 상호운용성에 기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 지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함

- **ETSI IPR 위원회, 금지명령규제 관해 작업 (2013.12.16)**
 - 2013년 12월 10-12일 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ITU, 유럽위원회 일반경쟁부, 기업 및 산업계, 미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외 ETSI 회원국 다수가 참여함
 - 현재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이르나, 2014년 2월 18-2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 앞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업들 간 협력과 기여에 대해 더 탐구하기로 합의함

- **2014 사이버보안 포럼,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보안 자동화 및 정보 공유에 포커스 (2013.12.17)**
 - 2014년 1월 28-30일 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림
 - 포럼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및 정보 공유, 보안 자동화 기술 통합으로써 사이버 방어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있음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국제 회의명	기간/장소	주요이슈	대응전략
IEEE 802 Plenary Meeting	미국 댈러스 '13.11.1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2.11ah TG에서는 Sub 1GHz specification framework을 작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Contribution들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 802.19.1 TG에서는 Draft 작성을 위한 comment resolution 및 presentation이 진행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21c 표준안의 1차 SB(Sponsor Ballot) 결과 제7된 코멘트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2013년 3월 IEEE802 Plenary 회의에서 최종 표준안이 IEEE SA의 RevCom에 제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 ETRI가 확보한 네트워크 자원 D2D 통신 특허기술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ETRI가 제안한 네트워크 제어/관리를 위한 미디어 독립 서비스 유스케이스에 대해 특허 및 타 표준과 중복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차기 회의에서는 IEEE 802.21.1의 유스 케이스로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제66차 ISO TC 184/SC4 회의	대한민국 경주 '13.11.3~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TC 184/SC4/WG13/ISO 8000의 Part 60 시리즈는 한국 주도로 진행 - ISO 8000-60, 61은 CD Ballot 개시 - ISO 8000-62는 스페인 63은 독일의 주도로 NMI 투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8000-60, 61은 국가별 CD ballot 독려 - ISO 8000-62와 63에 대한 내용 일관성을 위한 Review 제공
MA LOC WG 74차 회의	미국 라스베가스 '13.11.18~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Pe2.0 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E-assisted motion sub-state positioning 제공 • Image recognition based positioning 제공 • Crowdsourcing 제공 • Wi-Fi radio map(또는 Wi-Fi AP Heat map) 제공 - Dynav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격 논의 시작 - MLS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A(Indoor Location Alliance) 내에서 Location Server(LS)와 Location Retrieval Function(LRF) 사이인 LO 인터페이스를 추가 정의 • ILA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MLS 14 기술규격 작업 시작함. -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for public safety (미 NextNav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서비스 표준인 SNeW 1.0 은 현재 Candidate 상태이며 2014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release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해당 SNeW 표준의 참조표준으로 게임 내 적용 표준을 진행하고 있음 - Location for public safety 신규과제 관련 ETRI는 중립적인 입장임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12월 1일 ~ 31일)

보도날짜	소 식	출처	쪽
2013.11.25	개방형 표준을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방식	EU/ISA	1
2013.11.26	세르비아, ITU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의 2014 지역준비회의 개최	ITU	
2013.11.27	UN ICT 통계 심포지엄 개최 지속가능한 전세계적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	ITU	
2013.11.27	ETSI 미래 모바일 정상회의에서 5G 모바일 시스템 요건 논의	ETSI	2
2013.12.02	ITU, TV 및 라디오의 '실감적'이고 '개인화된' 차세대 오디오 시스템 권고 초안 발표	ITU	3
2013.12.09	ANSI, ITU-TSB 국장 말콤 존슨 초청해 텔레콤 및 ICT 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ANSI	4
2013.12.10	TIA, 스펙트럼 공유에 대한 백서: 정책 입안자를 위한 구체적 권고 발표	TIA	5
2013.12.10	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 표준 기반 통신 및 상호운용성 원한다	IEEE-SA	6
2013.12.11	ITU, 브로드밴드 속도 1Gbit/s까지 향상시킨 G.fast 표준 승인	ITU	7
2013.12.16	IMI, EU 법률구현 지원 위한 유연한 정보 시스템	EU/ISA	8
2013.12.16	ISA, ICT 솔루션 공유 위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검토	EU/ISA	
2013.12.16	ETSI,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에 관한 리포트 공개	ETSI	9
2013.12.16	ETSI IPR 위원회, 금지명령규제 관해 작업	ETSI	
2013.12.17	2014 사이버보안 포럼,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보안 자동화 및 정보 공유에 포커스	NIST	
2013.12.18	ANSI, 1월 워크숍에서 RAND 분쟁에 대한 토론 계속할 것	ANSI	10
2013.12.18	IEC, 세계 최초로 e-폐기물 줄일 노트북 충전기 기술표준 발표	IEC	11